

# 커피자판기, 이제 실속으로 승부한다

## 롯데기공, 200만원대 슬림형 인스턴트 커피자판기 출시

커피자판기 시장이 어렵다. 전문 운영자나 개인 운영자들을 겨냥한 OP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어 있다. 시장이 어려운 데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들이 활발히 상품화되지 못했다는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이런 시장 니즈를 반영한 커피자판기가 최근 롯데기공에 의해 출시되었다. 이 제품은 슬림형 제품(모델명 : LVM-3112K)으로 기능은 대형 못지않으면서 제품 가격대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실수요 시장에 인기를 끌만한 제품이다. 특히 급냉각되어 있는 개인운영자 시장을 겨냥하기에 좋은 제품이다.

이 제품을 봤을 때 한눈에 슬림형 제품임을 알 수 있다. 제품외형은 580(W)x660(D)x1630(h)이다. 기존 LVM 6612 대형 커피자판기와 비교할 때 높이는 200mm, 넓이는 190mm, 폭은 30mm가 작다. 제품이 날렵하고 가벼우니 일단 설치하기에 쉽다. 직원들이 별로 없어 기존의 무거운 자판기 설치에 애를 먹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건물 내 설치하기에 편리하다.

또 이 제품은 아웃도어에서 철수가 된 커피자판기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영업하기에 좋다. 무엇보다 가격대라 저렴하다. 소비자價가 200만원대로 300만원대 커피자판기와는 차별화된다. 저렴한 슬림형이라고 품질도 건성 건성하지 않는다. 대형 못지않게 갖추어야 할 기능은 다 갖추었다. 기존의 비슷한 모델인 LVM-3110은 대형커피자판기처럼 믹싱볼타입이 아니고 물통도 위에 있어 일부 불만 요인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LVM-3112K는 믹싱볼 타입에 물통도 아래쪽에 위치하게 했다. 대형 커피자판기와 거의 다름없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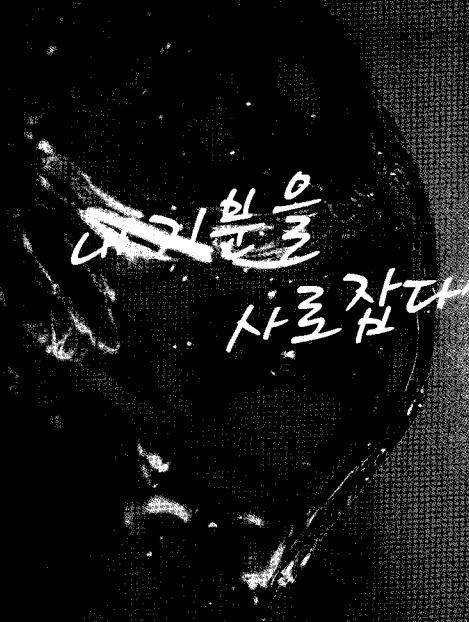
판매되는 차의 종류는 커피 4종, 차 2종 등 6종으로 선택버튼은 총 6개이다. 캐니스터는 5개이고 컵수용량은 350개이다. 급수통은 28ℓ 1개가 들어가며 히터탱크 용량은 4ℓ이다. 또한 상품설정기능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노트북으로 세팅값 설정이 가능하다. 심플한 디자인의 이 제품은 전문OP시장보다는 개인운영자들 중심으로 한 실수요 시장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캔음료, 병음료는 물론 대형 PET까지

# 롯데 PET자동판매기

신기술



더욱 편리해지고  
에너지는 절약하는 신기술  
캔+PET 최대 524개

- \* 저전력 운전으로 에너지 절감
- \* 동급 최대 광고면적
- \* 편리한 조작부 위치
- \* 상품 취급은 고품질 LED조명

# 이제 (주)동구로 불러 주세요!

동구전자 CI, BI 변경 통해 미래 지향적 기업으로 거듭난다



(주)동구전자가 상호를 바꾸는 등 대대적인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 Identity)변경작업을 진행한다. 기존의 상호에서는 전자를 빼고 (주)동구라는 브랜드만 사용했다. 이는 전자라는 상호가 특정 분야를 지칭하는 제한적인 느낌을 주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종합 제조업체를 지향하는 회사 비전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이다. 아예 새로운 상호로 변경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기존 동구전자라는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고 가치가 높은 만큼 전자 명칭만 빼고 '동구' (영문:DONGGU)명칭은 살리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임팩트는 더욱 강한 상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TeaTime**  
COFFEE DINE & DESSERT CAFE

(주)동구의 새로운 CI는 'Creative future(창조적 미래)'라는 의미를 담았다. 고객과 하나 되어 미래를 창조하고 가꾸어가는 참된 동구인의 모습을 무한한 열매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 속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칼라는 레드톤을 도입해 열정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소형 커피자판기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티타임'의 변경 BI는 감성적인 커피와 이성적인 기계의 만남을 통해 커피문화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또한 우아한 도시적 세련미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해 냈다.

이번 (주)동구로의 CI, BI 변경은 사세 확장 통해 미래 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 내려는 의도에서이다. 어제의 동구전자를 넘어 미래의 동구로! 새로운 도약을 공언한 동구가 자판기 산업계에 어떤 희망을 던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주)동구, 원두커피자동머신 라인업 강화

사이즈는 작아져도 기능은 대폭 강화한 신형 원두커피서비스기 출시

(주)동구의 원두커피자동머신 시장 개척이 발 빨라지고 있다. 최근 원두커피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자 원두커피자동머신(\*원두커피짜판기와 원두커피서비스를 포함하는 제품 카테고리) 분야에 대한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원두커피서비스기(모델명:DSK-D05FA)는 그간 시장에서 필요로 하던 기능들을 대폭 보완해 시장 대중화를 목적으로 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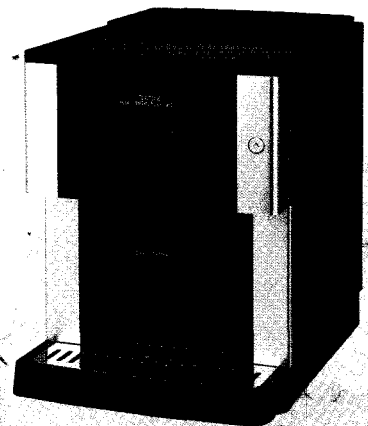
무엇보다 주목되는 기능은 설치장소 및 사용\*환경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외형을 콤팩트하게 만들었다. 제품외형은 300(W)X415(W)X400(W)mm.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음에도 이렇게 콤팩트화가 가능한 것은 슬러지통, 물량, 원두통 용량 등의 부분을 균형 있게 설계해 판매용량의 극대화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한 점도 돋보인다. 원터치 방식의 선택으로 2잔 용량의 더블샷, 노멀(norma), 마일드(mild), 스트롱(strong), 온수, 카푸치노의 각 메뉴 선택이 가능하다. 최적의 원두커피 맛을 내기 위해 사용자 기호에 맞게 음료량 및 음료 배출순서를 바꾸어 다양한 맛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운영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수기를 직결할 수 있게 했고, 커피슬러지의 배출 용량을 확대했다. 또 사용중에 발생하는 폐수가 트레이에 가득 차면 자동으로 배출되게 하는 오토 드레인(Auto Drain)기능을 채택했다.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최초로 히터 블록을 상용화했다. 이 기능은 물이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가열되므로 절전효과가 뛰어나다.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 고급질감이 한눈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고품격 디자인이 돋보인다. 편의성 강조하는 디스플레이부, 백라이트, 스마트 터치 버튼 등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기능들을 채택했다. 바디부를 블랙칼라로하고 좌우양면을 실버칼라로 하여 이중톤의 심플하면서 고급스런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좌우 양면칼라는 고객에 따라 설치환경에 잘 어울리는 칼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동구의 담당자는 “이번 출시된 신형 원두커피서비스기는 시장 니즈들을 세폭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원두커피서비스기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인 만큼 시장의 좋은 반응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품(모델명:DSK-D05FA)의 출시는 원두커피자동머신 라인업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동구는 앞으로 세분화된 시장에 맞게 원두커피자동머신을 집중 개발하여 다양한 풀라인업(Full Line Up)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동구의 인스턴트 기종들 못지않은 다양한 원두커피머신의 라인업이 갖추어지게 된다. 앞으로 원두커피자동머신 시장을 전략적 육성분야로 두고 있는 것이다. DSK-D05FA의 출시를 필두로 가속화될 동구 원두커피자동머신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 PC방 해킹걱정 이제 그만!

##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멀티페이' 출시



이제 PC방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주)웰컴애드(대표 김동훈)는 자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PC방 프리미엄서비스 제공 사업인 '엔플레이'를 통해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KIOSK :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멀티페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멀티페이'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여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 및 게임아이템, 쿠폰 등을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이다. 이

로 인해 PC방 손님은 멀리 가지 않아도 안전하고 쉽게 즉석 구매하여, 온라인게임이나 각종 사이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해킹 및 도용 등의 악용사례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PC방에 위치한 컴퓨터에서

무통장입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입력이 필수인 시점에서 이러한 보안이슈는 PC방 업주나 사용자에게 있어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입력이 전혀 필요없는 '멀티페이'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모를롭다. 아울러 PC방 주 사용자층이 신용카드나 핸드폰과 같은 결제수단이 부족한 학생층이라는 점에서 PC방 업주는 물론 사용자층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지역 PC방에서 시범서비스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 받았으며, PC방 업주나 사용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PC방에서 사용자들이 안전한 온라인 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